

INSIDERSPACE



다신은 안다. 꿈과 희망 아래서도, 낮은 자리가 부끄러워 있는 집에서도, 모두가 보아야 할 데고 두루마치릴 욕이 권 의인들을 부딪칠 때도, 외롭다는 걸, 남과 구호와 인물은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걸, 그럴 때 다른 곳 을 떠돌리는 건 위대한까 아닌 아세 발각되고 이는 도리일까? 전례로 수록원www.chokko.org 이라고 좋았다. 거간 막대한 식으로 채워진 공원이 아닌 진짜 실업아니, 별이 하릴라짐 대까지 바람을 달으며 걷다보면 숲 입에도 심들 수 있을 테다. 반사광양양양으로 부서진 꽃잎 같은 성운, 오랜 진주알처럼 반짝이는 성단, 흔후러진 행성과 은하들을 들여다보기도 싶다. 그것도 조지가 깊은산이 문명하는 금구원 전문대(www.keurikwon.org)라던, 금빛 땅서와 달인 듯한 하질년의 조각공원과 한밤의 산책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황산 백안달만큼 황송근에도 가고 싶다. 창치동 길을 오시화 두덩이 전부지만 정말 좋은 건 그래서다. 통신로뿐 이질한, 낙엽이 무렇게 깔려 묵직한 알자 주위를 걷는 동안엔 보이는 것들 보고 들리는 것들 들어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서울의 숲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근사한 일이다. 해공의 참 같은 고층 객실, 치어를 가릴기 뭉치는 와인, 붉게 부른 뽕으로 청명한 시도에 함께 놓는 진중한 사치라면, 확산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남들도 다 용납할 수 있을 것 같다. 12월을 보내는 건 가여과 행복, 기대와 실망, 흥족과 상실 사이에서 서성거리는 일이다. 2007년 12월도 결국엔 건다. 일초도 버뜨기나 느리게 않게.

12월이지만

파티에 가지 않아도 좋다. 교회도, 백화점도, 극장도, 길거리도, 하지만... 격할 여파 어떤



송도에서 쇼핑하실래요?

그런 쇼핑 공간의 존재를 묻다면? 전혀 없다. **다나벨 리베스킨트에게 설계를 맡았다.** 그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다. 그에게 브리핑을 할 때 한국은 전반적으로 지루하고 평범한 반면 한국 소비자들은 세계화되어 있고 스타일라이터이므로 그 수준에 걸맞은 공간을 만들려고 말했다. **여름 풀어 어떤 것들이 특별함을 만드나?** 먼 처음 개념을 잡을 때 강을 떠올렸다. 송도에서 사람들이 마쳐 별처럼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을 상상했다. 사실 송도에 부하 온갖해서 오고 싶어 만들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필요했다. **어떤 브랜드가 입점하게 되나?** 패션 감각이 있는 브랜드, 루이비통도 있고 '자라 나 유니클로'도 있다. 중요한 건 혁신의 브랜드를 케할할 권리를 주고 싶다는 거다. 5천 달러부터 천드백을 삼 사람은 적어도 백 달러짜리 명할지갑을 살 사람은 많으니까. **세계가 열두 번 뒤집힌다고 해도 쇼핑은 여자들의 영역에**

몰다 기울어 있다. 이 쇼핑공간에서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이 온천 아님까? 쇼핑한다는 송도국제도시의 일부다. 송도센터 주변에 조성될 공원은 뉴욕 센트럴 파크의 70% 규모에 이른다. 꼭 쇼핑을 하고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라운지 개념의 공간도 구상 중이다. **아편이를 위한 공간도 만들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누릴 수 있는 것도 없다. 결국 서비스의 문제 아님까?** 서비스 기준은 5성급 호텔이지만 이미 한국 최화점의 서비스도 좋은 걸로 안다. **당신은 어떤식으로 쇼핑을 즐기나?** 예트코와 프리다. 그리고 루이비통의 신발도 좋아한다. 어딜 가든 쇼핑을 한다. 우형 아이젠과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을 착할이 믹스한다. 티셔츠는 유니클로를 입는다. **쇼핑센터에서 갖어야 할 신사의 태도란 어떤 것일까?** 여성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 정직해야겠지만 너무 공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언제나 불쌍 없이 쇼핑백을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인한 송도에 어찌어찌한 규모의 쇼핑벨이 들어선다. 터프한 아시아의 모건 파커 대표와 얘기를 나눴다. **송도는 아주 넓은 곳이다. 당신의 밑그림이 궁금하다.** 송도는 지금 거대한 캔버스다. 통제되지 않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시작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당신의 이해에 송도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가 있나?** 매력적인 도전이다. 송도를 통해서 한국의 소매업 성격을 바꾸고 싶다. 완전히 새로운 소매업 생태를 여는 것이다.